

삼성전자 2019년형 '무풍에어컨' 공개

가구 같은 가전... '뉴 빅스비' 품고 온·습도 알아서 척척

〈삼성의 독자적 인공지능 플랫폼〉

성능은 기본 인테리어 요소 가미 고성능 서큘레이터로 바람 풍성 8단계 세기 조정... 전기료 절감 고객의 패턴 7가지 인자로 학습

성능은 기본에 인테리어적 요소까지 가미한 디자인의 가전이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가구 같은 가전이다.

삼성전자는 17일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2019년형 '무풍에어컨'을 공개했다. 이전 무풍 에어컨 제품들과는 달랐던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디자인 팀 최경열 전무는 "무풍 에어컨은 우리가 사는 공간의 모습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디자인"이라며 "스스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제품이 아닌 집안 풍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일상의 편안함을 만드는 디자인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2019년형 무풍에어컨은 바람문을 무풍패널 안으로 숨겨 제품을 작동시킬 때나 꺼둘 때 외관상 변화가 없다. 또한 제품 상단에 라이팅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에어컨 작동 모드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 파



삼성전자 모델들이 2019년형 '무풍에어컨'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랑색 등의 조명과 함께 정보를 띄워준다.

◆강력해진 고성능 서큘레이터 장착

성능은 더욱 강력해졌다. 전자들에 대비해 이번 신제품에서 달라진 부분은 고성능 서큘레이터를 장착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세계 최초로 무풍에어컨을 출시한 후 2017년 무풍에어컨 라인업을 확장했고 2018년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했다.

2019년형 무풍에어컨은 무풍패널 안쪽에서 강력한 냉기를 뿜어내는 3개의 '하

이패스 팬'에 바람을 위로 끌어올려 멀리 내보내 순환시키는 '서큘레이터 팬'까지 새롭게 더했다. 기존 대비 20% 더 풍성한 바람을 빠르게 순환시켜 사각지대 없는 공간 냉방을 제공한다.

또한, 이 제품에는 한층 강화된 '와이드 무풍 냉방'이 적용됐으며 무풍패널 면적이 기존 제품 대비 두 배 커졌다. 냉기를 균일하게 흘러보내는 '마이크로 홀'의 개수도 13만5000개에서 27만개로 두 배 증가했다. 제품 뒷부분에는 전자보다 1.5

배 커진 흡입구를 장착해 더운 공기를 한번에 더 많이 빨아들인다.

기능은 높였지만 전기료는 낮췄다. 0.5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하고 8단계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전기비 절약도 가능하다. 미세제어, 바람세기 단계가 넓을수록 에너지의 세밀한 조절뿐 아니라 절전 효과도 크다. 기존 제품들은 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이 가능했고 6단계 바람 세기를 갖추고 있었다.

삼성전자 에어컨 개발팀 관계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스탠드 형 무풍에어컨의 전기료 개선량은 30% 이상"이라며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풍에어컨의 청정 기능도 한 단계 진일보했다. 극세필터·전기집진필터·탈취필터로 이루어진 'PM1.0 필터시스템'과 미세한 전기장 방식으로 지름 0.3μm(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입자까지 99.95% 제거할 수 있는 'e-헤파(HEPA) 필터'를 더해 최대 113m³의 넓은 공간도 빠르게 청정할 수 있다.

◆더 똑똑해진 '뉴 빅스비' 탑재

2019년형 무풍에어컨에는 삼성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플랫폼 뉴 빅스비가 탑재

돼 한 단계 진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 전면 상단 오른쪽에는 빅스비 로고가 박혀있다.

30회 이상 사용한 고객의 사용패턴을 온도, 습도, 외부온도, 외부 습도, 작동시간, 바람세기, 청정 등 7가지 인자로 학습한 뒤 사용자가 선호하는 모드로 알아서 운전해준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나의 생활습관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음성으로 무풍에어컨과 연결된 벽걸이 에어컨·공기청정기·TV 등 삼성 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날씨·증권 등의 생활 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목소리를 구분해 맞춤 제어하는 '화자인식' 서비스와 실내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에게 제품 유지보수 방법이나 절전 가이드를 알려 주는 서비스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상반기 중에 제공될 예정이다.

빅스비가 탑재된 작년 에어컨 제품들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인지 가능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세윤 기자 yun2514@metroseoul.co.kr

'실패해도 괜찮아'... SK하이닉스, 사내 벤처 사업화



‘하이개라지’ 출범

올 접수 아이디어 중 6개 선정 12억 지원... 최대 2년간 컨설팅

SK하이닉스가 사내 벤처 프로그램 6개를 사업화한다.

SK하이닉스는 17일 이전에 있는 본사에서 '하이개라지'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이개라지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다.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해 8월 처음 공모를 시작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240건이다. 이 가운데



17일 SK하이닉스 경기도 이전 본사에서 열린 사내벤처 '하이개라지(HiGarage)' 출범식에서 이석희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사내벤처 주인공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데 6건이 육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금은 총 12억원이다.

직원들은 별도 전담 조직으로 이동해

최대 2년간 컨설팅 등 준비 과정을 마친 뒤 창업과 사내 사업화를 선택하게 된다.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에도 재입사를 보

장한다.

'테스트 공정용 질러 장비 국산화'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에서 온도를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로 외국산 점유율이 높다. SK하이닉스 김형규 기장이 제안했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반도체 공정 데이터 모델링 기술'도 육성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하이개라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매년마다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하이개라지는 SK하이닉스가 사업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며 "사업화를 성공시켜 그간의 노력들을 결실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 CNS 이더리움 연합 회원사 가입

글로벌 3각 공조체제 구축

LG CNS가 '이더리움 기업 연합(EEA)' 회원사가 됐다고 17일 밝혔다.

EEA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인 이더리움을 활용해 기업용 솔루션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컨소시엄이다. 지난 2017년 출범했으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건 등 글로벌 기업 500여개가 참여하고 있다.

LG CNS는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이퍼레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보다 앞선 2017년 5월에는 금융에 특화된 컨소시엄 'R3'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이번 EEA 가입으로 LG CNS는 국내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기업용 블록체인 3대 기술 혁신을 위한 글로벌 3각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EEA, 하이퍼레저, R3 등 3개 단체는 각기 다른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기업용 기술을 다룬다는 점은 동일하다. 특히 업계는 이들 3개 기술을 기업용 글로벌 톱 3 블록체인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용 블록체인은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다르게 사전에 합의한 사용자들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비트코인 등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있는 가상화폐가 필요 없는 구조다.

LG CNS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했으며, 1월말 시범서비스 오픈을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모바일 상품권, 문서 인증, 디지털 신분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LG CN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토대로 구축되며 모나체인의 기반 기술이 바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다.

/구세윤 기자

세계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은?... 'LG 그램 17'

세계 기네스 협회서 인증 받아 LG, 기네스 월드 레코드 3개 보유

LG전자는 자사의 초경량 노트북 'LG 그램 17'이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으로 등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기네스 협회는 미국·영국 등 7개국에서 판매 중인 약 150종의 17인치 노트북 무게를 측정해 결과, LG 그램 17이 가장 가볍다고 인증했다. 이로써 LG전자는 14인치와 15.6인치 LG 그램에 이어 17인치 모델까지 모두 3개의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보유하게 됐다.

LG 그램 17은 17인치 대화면을 탑재하고도 무게는 1340g에 불과하다. LG전자

는 2014년 초경량 노트북 'LG 그램'을 론칭한 이후 초경량 노트북 시장에서 돌풍을 이어왔다. 13.3, 14, 15.6인치에 이어 올해에는 최대 크기 모델인 LG 그램 17을 앞세워 대화면 노트북 시장까지 적극 공략하고 있다.

LG 그램 17을 포함한 LG 그램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출시 후 15일 만에 3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0% 가량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단 기간 내 3만대를 돌파한 기록이다.

특히 LG 그램 전체 판매량 가운데 LG 그램 17, LG 그램 15 등 대화면 모델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LG 그램 17은 2560×1600 해상도의 WQXGA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구현한다. 이 제품의 화면 비율은 16:10으로, 16:9 비율보다 아래쪽에 숨겨진 화면을 더 보여줘 사진·영상 편집, 문서 작업 등이 더 편리하다.

이 제품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한 'CES 혁신상'을 비롯해 리뷰닷컴, 테크레이더 등 해외 유력매체들로부터 CES 최고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LG 그램이 연속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기록한 것을 기념해 다양한 체험 마케팅도 진행한다.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상영관에 LG 그램 이름을 딴 전용관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을 위한 LG 그램 17 체험공간도 마련



LG전자는 자사의 초경량 노트북 'LG 그램 17'이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으로 등재됐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

했다. 'LG 그램관'은 6월 말까지, 제품 체험공간은 2월 18일까지 운영된다.

/구세윤 기자